주암댐 상류에 돼지축사라니

농협 영광 종돈사업소, 70억 투입 건축 허가 신청
보성 복내면 주민들 "농산물 오염 극심" 철회 촉구

보성 주암댐 상류지역에 돼지 종돈장(種豚場)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성군 복내 면민회(회장 윤용락)와 율어 면민회(회장 선병채)는 최근 복내면사무소앞 광장에서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종돈 사육장(GGP)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29일 보성군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영광 종돈사업소는 지난 4월 중순께 군청 복합민원계에 종돈장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종돈장은 사업비 70억원을 투입, 복내면과 율어면의 경계지역인 복내면 동교리 산 2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9500㎡·건축물 면적 7995㎡로 모돈 350마리 등 42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사전 설명회도 없이 주암호 상류 청정지역에 대규모의 돼지 축사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종돈장 사업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선병진 보성군의회 의장은 "지역민들은 주암호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수변구역 지정 등 법률적인 행위제한을 당하면서도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으로 수질보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돼지 종돈장이 설치되면 악취로 인해 녹차와 고추·표고버섯 등 주암호 상류의 청정 농·특산물의 판로가 막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 중앙회의 사업철회와 주암호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에 책임을 맡고 있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성군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 지역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지역"이라며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와 수질오염 총량관리 검토 등을 요구해놓은 상태여서 현재 심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농협 영광 종돈사업소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으로 전국에서 돼지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종돈장은 외부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은 청정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일반 돼지농장과 달리 냄새를 포집·필터링해 악취를 방지하고, 분뇨를 액비(물거름) 처리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관리해 주암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석양의 갯벌서 추억줍기

〈여수시 제공〉

내달 1~3일 '여수 여자만 갯벌 노을축제'

'제5회 여수 여자만 갯벌 노을축제'가 6월 1일부터 3일까지 여수시 소라면 사곡일대에서 개최된다.

첫날인 1일에는 길놀이와 풍어제를 시작으로 개매기 체험, 섬 보물찾기, 지역 해산물을 듬뿍 넣어 한 번에 500여명이 맛볼 수 있는 화합의 비빔밥 나눔행사 등이 펼쳐진다.

또 꼬막·바지락 캐기 체험, 뻘배타기 체험, 개매기 체험, 갯벌 바다음식 체험, 소원풍선 날리기, 삼동매구 공연, 노을 콘서트와 '황금조개를 찾아라'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행사 참여자들의 체험비용 일부를 여수 상품권으로 지급, 지역 특산물 구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청현 축제추진위원장은 "숨 쉬는 연안, 건강한 갯벌의 생동하는 숨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자만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상태가 가장 좋은 2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곡성 자연순환농법 확대

벼 2013년까지 500ha로 늘려 브랜드 쌀 재배

곡성군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최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순환 생명농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벼농사 유기농업 인증계획 면적 1143ha 가운데 200ha를 자연농업으로 재배할 예정이다. 또 2013년까지 500ha로 확대하는 등 품종과 재배법을 통일해 브랜드 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군은 산지가 전체면적의 70%가 넘는 지역으로 산과 들, 강 등에서 자생하는 잡초 중에서 쑥과 미나리를 활용해 작물재배 생육을 촉진하는 농업자재로 활용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자재 실습장 50평을 운영, 농업인의 천혜녹즙 조제 실습을 도와주고 직접 담궈서 보관했다가 가져가 농사에 이용토록 하고 있다.

군은 자연농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조한규 지구촌 자연농업 연구원과 컨설팅 계약을 통해 곡성 쌀의 품질 향상과 자연농업 유기농 시험재배를 16품목에 걸쳐 추진한 결과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곡성 군 관계자는 "올해 7억원을 투입해 토착 미생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농업인이 직접 토착 미생물을 만들고 토양을 가꾸어 간다면 친환경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순천 별량면에 '첨산 둘레길'

순천시 별량면에 총길이 4km의 웰빙 산책로인 '첨산 둘레길'이 조성됐다.

첨산 둘레길은 별도의 예산 지원없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조성돼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별량면은 둘레길 홍보를 위해 지역 주민 200여 명과 별량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을 현장 체험학습 일환으로 참여시켜 둘레길 개통식을 가졌다.

그동안 첨산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서식하고 휴식처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지리적 여건상 등산로가 가파르고 위험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번 '첨산 둘레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고 전 구간이 오솔길로 돼 있어 길을 걷다 보면 편백나무, 소나무, 참나무 숲 등 다양한 숲길을 만날 수 있다. 총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한시 시행

광양시, 3년간

공유(共有) 토지로 인한 소유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현재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본격 시행에 들어갈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남원 광치천 휴식공원 변신

남원시가 광치천을 새로운 친수(親水)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남원시는 광치천을 산책 및 휴식공원으로 가꾸어 건강한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해 97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생태복원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광치천 상류에는 축산 밀집지역과 농경지 등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지저분하게 방치됐다.

시는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하고 하상정비, 수질정화식물 식재, 둔치조성, 탐방로를 개설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동국여지승람에도 소개된 '보련산 차밭' 복원

남원녹차 옛명성 되찾는다

10ha 자생단지 관광자원 육성

남원시가 옛 녹차 명성 되찾기에 발벗고 나섰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여에 걸쳐 옛 문헌에 소개돼 있는 보련산 자락의 차밭을 복원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려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옛 문헌인 '만복사 저포기'를 비롯해 '동국여지승람', '선조실록' 등에는 남원 보련암차의 우수성이 소개돼 있다.

시 조사결과 보련산 고리봉 자락에 500~700년된 자생녹차밭(1만3200㎡)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농촌 구전자원 활용 소득화 사업장으로 선정, 고리봉 자락에 녹차 씨앗을 뿌려 10ha의 자생 녹차단지를 조성했다.

또 떡차를 개발해 남원만의 전통맛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남원 떡차는 3마디 정도에서 녹차잎을 수확한 후 덖고, 비비고, 말리고, 발효시켜 6개월 이상 숙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밖에도 꾸지뽕잎과 민들레·싸리잎 등 10여종의 대용차가 생산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황토로 신축한 다례 교육장과 전시 판매장, 체험장 등에서 내방객에게 좀더 편안하고, 품격 높은 맛을 제공해 남원 명품 자생 녹차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종자업체, 김제에 25억 투자

코레콘, 유리온실 등 착공

굴지의 종자업체가 전북에 둥지를 틀었다.

29일 김제시에 따르면 종자 중견업체인 (주)코레콘이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일원에 3만6000㎡의 농지를 구입하고 사무실·하우스 등의 종자시설을 착공하고 있다.

(주) 코레콘은 오는 2020년에 국내 1위를 목표로 내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해 육종 연구인력 12명을 확보하고, 첨단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후 2015년 민간육종 연구단지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 1996년 설립환 (주) 코레콘은 연간 200억원 이상 종자 매출액을 올리는 유망업체로, 우량종자의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 교두보 확보와 종자산업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 수출 매출액은 지난 2000년 45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69만 달러로 3배 이상 껑충뛰었다.

전북도 박진두 친환경유통 과장은 "올해 안에 수출 유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익산 '탑마루' 공동법인 출범

익산시 14개 농·축·원협이 출자해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적 마케팅에 들어갔다.

익산시는 최근 이한수 익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의원, 농협 조합장 및 관련 단체장, 생산 농가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탑마루조합 공동 사업법인'(이하 법인) 출범식을 가졌다.

시는 그동안 익산 탑마루 유통 연합사업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5월에는 산지유통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농산물 시장에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와 함께 품목별 생산 조직을 육성하고 농가를 조직화 하는 등 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어 이달 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인가받고,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됐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고창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최근 고창군 청소년 지원센터 주관의 '예비 고교생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피자를 직접 만들고 있다. 〈고창군 제공〉

단신

군산시 4개월간 '오존 예보·경보제' 운영

군산시는 오존(O_3)이 발생하기 쉬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오존 예보·경보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현재 시는 신풍동 주민센터·소룡동 (주)롯데주류·개정동 주민센터) 등 측정소 3개소에서 24시간 상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개소의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이상이 되면 오존경보가 발령된다.

시는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도로전광판과 읍·면·동 가두방송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익산경찰, 새터민과 기업·문화 탐방

익산경찰서(서장 조용식)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15명과 함께 지역기업 및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익산경찰은 (주)하림(대표 김홍국)을 방문, 관계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주선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에 나섰다. 미륵사지 등 문화 유적지를 탐방,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익산경찰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해 (주)호남농산, (주) 대용 등 지역기업에 대한 견학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순창 장류-울주 옹기 교류 활발

순창군과 울주군이 지난해 문화교류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와 군 관계자 10여명은 지난 25일부터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에서 열린 '울주 옹기축제'에 참가해 순창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순창장류 홍보에 적극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해 업무 협약식을 맺은 이후 10월 울주 옹기축제와 11월 순창 장류축제에 상호 참여했으며, 지난 3월에는 울주군 관계자가 순창을 방문해 지난해 울주 옹기축제시 순창군수가 서명한 옹기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창 송암마을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선정

고창군 흥덕면 송암마을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2012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시범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마을 당산굿 재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송암마을 당산굿은 1970년대 산업화 이후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힘겹게 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